

李舜臣의 水軍戰略과 閑山大捷

諸 章 明

(해군 충무공리더십센터)

- 머 리 말
- 戰略思想의 형성과정
- 전략사상의 특징과 水軍戰術
- 閑山大捷과 李舜臣의 戰術
- 맺 음 말

1. 머 리 말

忠武公 李舜臣은 임진왜란 시기 주요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어 전황을 조선에 유리하게 이끄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순신의 해전 승리요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예컨대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전술, 조선 수군의 우수한 전선과 船載火砲로 대변되는 무기체계의 위력, 그리고 충성심과 의리로 뭉친 휘하수군들의 적극적인 참전 등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이순신의 해전 승리요인 중 그의 전략전술을 다룬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였다. 기존 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경향은 이순신이 참전한 주요 해전을 소개하면서 이를 평가하는 형태가 있다.¹⁾ 그리고 이순신의 전략전술을 오늘날의 전략개념에 수용하여 분석하는 경향도 있고,²⁾ 병법 측면에서 이순신의 전략전술을 분석한 논문도 있다.³⁾ 또한 전근대 시기와 현대 시기의 전략전술 개념을 혼용하여 사례 위주로 연구한 성과도 있고,⁴⁾ 그의 전략사상과 전략전술을 현대 해양전략적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한 논문도 있다.⁵⁾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이순신의 전략전술을 밝히는데 각기 一助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유사 형태의 논저들이 있는데, 그 論旨들은 대동소이하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순신의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성과가 없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순신이 지휘한 해전 중 閑山大捷을 사례로 분석하여 그의 전술구사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순신이 지휘한 해전 중 그의 전략사상과 전술이 가장 유감없이 표출된 해전이 한산대첩이기 때문이다.

한산대첩은 이순신이 임진왜란 초기의 제3차 출동에서 수행한 閑山島 해

-
- 1) 대표적 논저로 金一相, 『壬辰倭亂과 李舜臣의 戰略』, 『龜海 趙成都教授 華甲記念 忠武公 李舜臣 研究論叢』,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서울: 연경문화사, 1991); 崔七鎬, 『李舜臣 將軍의 戰略構想과 作戰結果』, 『軍史』 2, 군사편찬연구소(서울: 1981) 등이 있다.
 - 2) 姜永五, 『壬亂期 朝日의 海軍戰略』,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대전: 1993); _____, 『이순신 전략의 현대적 분석』, 『海洋研究論叢』 제18집, 海軍海洋研究所(1997).
 - 3) 林元彬, 『충무공이순신병법연구』, 『海洋研究論叢』 제20집, 해군해양연구소(1998); _____, 『충무공 이순신의 병법과 근대해전』, 『海洋研究論叢』 제22집(1999); _____, 『충무공 이순신의 용병술 연구』, 『海洋研究論叢』 제24집(2000).
 - 4) 羅鐘宇는 충무공의 전쟁목적과 지휘통솔력에 대하여 전제하고, 그의 탁월한 전략전술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羅鐘宇, 『忠武公 李舜臣 提督의 戰略戰術』,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해군군사연구실(대전: 1993).
 - 5) 최두환, 『충무공 이순신의 해양전략사상 연구』, 『海洋研究論叢』 제27집, 해군해양연구소(2001).

전과 安骨浦 해전의 總稱이다.⁶⁾ 이는 임진왜란 3대첩 중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세계 4대 해전의 하나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한산대첩에 관한 연구는 이순신의 전략전술 연구와 연계하여 다수의 성과가 있다.⁷⁾

여기서는 기존연구에서 소홀히 다룬 이순신의 전략사상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본 후 그의 전략사상의 특징과 당시의 수군전술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순신이 중점 지휘한 한산대첩을 전술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戰略思想의 형성과정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맞아 그가 수행한 대부분의 해전에서 탁월한 전략전술을 발휘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순신은 언제부터 전략가가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순신이 전라좌수사가 되기까지의 그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순신은 어릴 때 두 형과 함께 儒學을 공부하면서 文官의 꿈을 키우다가 22세에 武官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다. 崇文賤武의 시대상황 속에서 이

6) 한산대첩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조성도는 한산도 전양해전과 안골포해전을 합하여 한산대첩이라고 하였다(조성도, 『忠武公의 生涯와 思想』(明文堂, 1989), 161쪽). 반면에 정진술은 한산대첩을 한산도해전의 승리만을 말한다고 하였다(鄭鎭述, 『閑山島海戰研究』,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1993, 160쪽). 필자는 한산대첩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조선수군이 일본수군의 최고 지휘관 및 정예세력이 공히 참전한 두 해전을 연파한 것이 의미가 크므로 두 해전을 총칭하여 한산대첩으로 지칭하였다.

7) 한산대첩에 대한 연구 성과는 임진왜란사 또는 이순신의 일대기를 다룬 단행본에 거의 빠짐없이 기술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이민웅, 『임진왜란해전사』(청어람미디어, 2004), 92-101쪽을 들 수 있다. 한산대첩을 다룬 논문으로는 金駟起·李在均, 『閑山大捷과 그 影響』, 『삼척공업전문학교논문집』 2, 1970, 105-118쪽; 鄭鎭述, 『閑山島海戰研究』,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1993, 159-194쪽 등이 있다.

순신이 무관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한 가지는 이순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武人의 기질을 타고났다는 점일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이러한 점을 설명해 준다.

어려서 영특하고 남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여러 아이들과 유희하면서도 언제나 진치는 놀이를 하며 아이들이 대장으로 떠받들었는데, 동리에 불쾌한 일이 있으면 문득 억누르고 꺾어 버리므로 동리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⁸⁾

이와 같이 이순신은 유년 시절부터 진법놀이를 하거나 대장이 되려고 하는 등 무인의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무인으로서의 기질은 향후 무관으로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이순신이 21세에 결혼한 후 그의 장인 方震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방진은 무관출신으로 보성군수를 역임한 후 은퇴하여 향리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의 슬하에는 무남독녀만 있었다. 그는 무인으로서 호방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자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했는데, 이순신의 품성과 자질을 높게 평가하여 자기 딸과의 혼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순신이 결혼한 후에는 무관직을 적극 권유한 것이다.⁹⁾ 이와 같이 이순신이 무관직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그 자신의 무인으로서의 기질과 장인 방진의 적극적인 권유가 어우러진 결과로 생각된다.

이순신은 22세에 무예에 입문한 후 방진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도에 힘입어 무과 시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갔다. 그리하여 그는 무예에 입문한 지 10년만인 32세에 式年武科 시험에 합격하였다.¹⁰⁾ 당시 무과합격자는 29명

8) 『李忠武公全書』 권10, 부록2, 李植 撰, 「諡狀」.

9) 홍순승, 『이 시대에 충무공을 생각 한다』(대전: 오늘의 문학사, 1998), 25-27쪽.

10) 통상 28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시험과목은 木箭·鐵箭·片箭 등 궁술과 騎射·騎槍·騎擊毬·步擊毬 등 승마술, 그리고 사서오경·무경칠서·『통감』·『경국대전』 등 강서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시험과목의 성적은 覆試의 28명 인

을 선발했는데, 이순신은 병과 4등(전체 12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당시 무과 합격자의 출신별 분포도를 볼 때 방진의 도움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당시 합격자 29명 중 保人은 이순신을 포함하여 4명뿐이었고, 나머지 25명 전원이 현직군인이었다.¹¹⁾ 그들은 해당 군 부대에 임관하기 위해 무과 고시과목과 거의 동일한 무예를 이미 연마했으며, 군내의 평시훈련도 고시과목의 반복교육이었다. 특히 騎擊毬와 步擊毬는 현직 군관의 필수 무예였다.

반면 당시 보인 신분으로 私家에서 무예를 연마한 이순신의 승마술은 체계화된 승마술을 반복한 현직 군관들을 압도할 수 없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현직들과 다른 보인 신분으로서 당당히 합격을 하였고, 당시 보인합격자 4명 중에서도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¹³⁾ 이렇게 볼 때 보인 신분인 이순신이 전체 12등이라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인 것은 장인 방진의 조력과 함께 그의 부단한 노력이 거둔 결실로 생각된다.¹⁴⁾

그런데 당시 殿試의 성적순위는 기격구와 보격구 성적만으로 매겼기 때문에 이순신이 어떤 분야에 탁월한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일화를 통해 볼 때 이순신은 다른 분야보다도 병법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을 선발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이었다. 殿試에서는 기격구와 보격구의 성적만으로 합격 서열을 매겼다.

- 11) 당시(병자년) 무과합격자의 직책을 보면 29명 중 현직자는 사복 3, 내금위 7, 충순위 4, 정노위 7, 충의위 2, 감사 1, 별시위 1명이었으며, 보인은 4명이었다(장학근, 『이순신의 관력과 전술의 관계』, 『忠武公 李舜臣』 국립진주박물관, 2003, 159쪽).
- 12) 장학근, 위의 글, 159쪽.
- 13) 보인 합격자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은 갑과 2등의 朴宗男이었고, 두 번째가 병과 4등의 李舜臣, 세 번째는 병과 17등의 成永吉, 네 번째는 병과 20등의 李忠信이었다(장학근, 위의 글, 157쪽.)
- 14) 당시 현직자의 생계를 책임진 보인신분으로서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무과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재력가인 방진의 지원은 이순신의 무과준비에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무경을 외우는데 다 통하였는데, 黃石公 素耨를 講하다가 시험관이 “張良이 赤松子를 따라가 놀았다 하였으니 장량이 과연 죽지 않았을까?” 하고 묻자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요, 강목에도 ‘壬子 6년에 유후 장량이 죽었다’고 하였으니 어찌 신선을 따라가 죽지 않았을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만 假托하여서 한 말이었을 따름입니다”고 대답하니 시험관들이 서로 돌아보며 “이것은 武士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탄복하였다.¹⁵⁾

이를 통해 볼 때 이순신은 무과시험 과목 중 병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순신이 이러한 병법분야에 조예가 깊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李暉光의 지적과 같이 당시 무인들이 병법을 소홀히 대하는 듯한 현상과 비교해 볼 때 이순신의 독특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예를 업으로 하는 자들은 비록 활 쏘고 말달리는 법은 익히고 있으나 병서는 읽지 않으니, 장수다운 인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¹⁶⁾

따라서 어릴 때부터 글공부를 한 이순신은 병법서적을 섭렵하는데 다른 무장들보다 유리했을 것이고, 병법에 탁월한 이순신이야 말로 다른 무인들과는 차별성을 가진 전략가로서의 기본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그의 병법에 관한 전문지식수준은 그가 발포만호로서 최초의 수군생활을 할 때 드러난 한 가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충청도 兵使의 軍管(중7품)으로 근무하다 6품계 위의 발포수군만호(중4품) 직에 임명되자 주위에서 과격적인 그의 승진에 의심을 하여 당시 전라감사 孫軾에게 조사를 요청하였다. 손식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순신의 직

15) 『李忠武公全書』 권9, 부록1, 李芬 撰, 「行錄」.

16) 李暉光, 『芝峰類說』 권4.

我國業武者 雖習弓馬不讀兵書 宜將才之不出也.

무수행능력을 평가하였는데, 다음의 사례는 그의 방법에 관한 전문지식 수준이 어떠한가를 밝혀준다.

경진년(36세) 가을에 발포만호가 되었을 때 감사 손식이 참소하는 말을 듣고 공에게 별을 주려고 하여 순행차로 능성에 와서 공을 마중오라 불러다가 陣書에 대한 강독을 끝내고 또 陣圖를 그리게 하자 공이 붓을 들고 정묘하게 그려 내니 감사가 꾸부리고 한참동안 들여다보다가 “어찌면 이렇게도 정묘하게 그리는고” 하며 그 조상을 물어보고, “내가 진작 몰랐던 것이 한이다” 하며 그 후로는 정중하게 대우하였다.¹⁷⁾

이와 같이 이순신은 병법서적의 섭렵을 통해 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충실하게 쌓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병법서는 해전만을 수록하지 않았고 그 비중도 疏略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언제부터 해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순신이 수군 직에 근무한 것은 36세 때인 발포만호직이 처음이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수군의 중요성과 해전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識見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의 해양활동과 관련된 사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하기 어렵다. 다만 이순신이 당시 곧은 성격과 고분고분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상관인 전라좌수사 李庸戈으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되었는데,¹⁸⁾ 이때 나타난 한 가지 사례를 통해 그의 수군 활동에 대한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7) 『李忠武公全書』 권9, 부록1, 李芬 撰, 『行錄』.

18) 이순신은 발포만호 시절 직속상관인 좌수사 성박이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발포 객사 앞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오라고 부하들을 시켰을 때 이를 저지한 적이 있다. 나라의 물건을 사적인 일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유였다. 후임 수사 이용은 이러한 이순신의 고분고분하지 않는 성격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 이순신에게 불리한 평가를 적용한 적이 있다(『李忠武公全書』 권9, 부록1, 李芬 撰, 『行錄』).

水使와 監司가 같이 모여 관리들의 성적의 우열을 심사하면서 공을 맨 아래에 두려고 하자 重峰 趙憲이 都事로서 붓을 들고 있다가 쓰지 않고 하는 말이 “李 아무의 군사를 거느리는 법이 이 도에서는 제일이라는 말을 들어 왔는데, 다른 여러 鎭을 모두 아래에다 둘망정 이 아무는 꺾할 수 없을 것이요” 하여 그만 중지하였다.¹⁹⁾

이 사례에서 비록 이순신의 수군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水軍鎭의 首將으로서의 근무태도가 먼 거리에 있는 조현이 알 정도로 뛰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조현이 말한 ‘군사 거느리는 법’이란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순신이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순신이 그가 보유한 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다음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계미년(39세) 가을에 이용이 남병사가 되어 위에 아뢰어 공으로 군관을 삼으니 그것은 전일에 공을 잘 알아주지 못했던 것을 깊이 뉘우치고 이 길에 서로 사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공을 보고서는 몹시 기뻐하며 다른 이보다 배나 더 친밀히 해 줄 뿐 아니라 군사 사무에 있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그해 겨울에 건원보 권관이 되었다. 그때 오랑캐 鬱只乃가 변방의 큰 근심이 되었지마는 조정에서는 걱정만 했지 잡을 도리가 없던 차에 공이 여기 도입하여 방책을 써서 피어내니 울지내가 오랑캐들을 데리고 오므로 공은 복병을 배치했다가 그들을 사로잡았다.²⁰⁾

우선 남병사 이용의 군관시절에는 지휘관의 신임을 받아 크고 작은 일에 자문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크고 작은 일은

19) 『李忠武公全書』 권9, 부록1, 李芬 撰, 「行錄」.

20) 上同.

군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野人의 침입이 잦은 변방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적을 막는 방책에 관한 일들도 많았을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일들에 이순신이 남병사 이용의 자문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은 그의 병법원리의 현실적용 능력이 매우 뛰어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건원보 권관 시절에 야인의 두목을 사로잡는 전과를 거둔 사실은 그의 전략가로서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입증해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순신은 부친상을 치른 후 42세에 造山堡만호 직에 임명되었다. 조산보는 당시 북병영 휘하의 유일한 水軍鎭이었다.²¹⁾ 진의 위치가 두만강 변에 위치하여 해전을 수행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수군은 바다와 강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43세에 동해와 맞닿은 곳에 위치한 녹둔도의 둔전관을 겸직하면서 수군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²²⁾ 따라서 이곳에서의 근무경험도 그의 전략사상 형성에 一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순신이 녹둔도의 둔전관을 겸직하고 있던 중 야인들의 침입을 당해 군사 10여 명이 전사하고 106명의 민간인이 불잡혀가는 피해를 입은 일이 있다.²³⁾ 이로 인해 이순신은 북병사 李鎰에게 杖刑을 당한 후 白衣從軍하였다. 여기서 그가 겪은 실전에서의 쓰라린 패배사례는 그의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한층 성숙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순신이 몇 가지 보직을 더 거친 후 전라좌수사로 부임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47세인 1591년 2월이었다. 이 시점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2

21) 당시 함경도의 수군만호직은 세 곳이었다. 남도에 浪城浦·道安浦가 있었고, 북도에는 造山浦가 있었다(『經國大典』 권4, 「兵典」).

22) 녹둔도농보는 沙次磨島(당시 녹둔도를 沙次磨島라고도 불렀음)에 있는데, 이 섬은 경흥부 남쪽 56리에 있다. 두만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서 조산포까지 20리 떨어져 있는데, 병선이 배치되어 조산만호가 관장한다. 하절기에는 본포 수군이 이곳에 분산 주둔한다(국방군사연구소, 『국토개척사』, 1999, 194쪽).

23) 『宣祖實錄』 권21, 20년 10월 10일 乙丑.

개월 전이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능력에 대하여 다음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서 아직 군수에 부임 하지도 않았는데 좌수사에 초수하시니 그것이 인제가 모자란 탓이긴 하지만 관작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체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순신의 일이 그러한 것은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 인제가 모자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하였다.²⁴⁾

즉 종6품인 현감직에서 정3품의 전라좌수사로 품계를 크게 뛰어 넘어 보직된 것에 대해 사간원에서 크게 반대하였지만, 선조의 긍정적인 입장표명으로 보아 이순신의 능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전라좌수사에 보직된 이순신은 전쟁에 대비하여 해전준비에 매진하였다. 이 기간 중 그의 후견인 柳成龍이 보내 준 「增損戰守方略」²⁶⁾이라는 병법서는 그의 전략사상 형성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의 『亂中日記』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3월 초 5일(을축)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서울 갔던 진무가 돌아왔다. 좌의정이 편지와 ‘증손전수방

24) 『宣祖實錄』 권25, 24년 2월 16일 癸未.

25) 이러한 인식을 보인 사례로는 이순신이 조산보만호로 부임하기 이전에 부친상으로 낙향했을 때 조정에서 이순신을 등용시키기 위해 그의 탈상시기가 언제인지를 두세 번씩 물은 사실을 들 수 있다(『李忠武公全書』 권9, 李芬 撰, 『行錄』).

26) 「增損戰守方略」에 관한 자료는 현재 알 수가 없다. 다만 『서애문집』에 보면 유성룡이 1594년에 선조에게 올린 ‘戰守機宜十條’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의 서문에 ‘增損’, ‘戰守’ 등의 용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시기인 1591년에 이 책자를 서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략이란 책을 보내왔다. 그것을 본즉, 海戰·陸戰과 火攻戰 등에 관한 것을 낱낱이 말했는데, 참으로 만고에 특이한 전술[奇論]이었다.²⁷⁾

위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순신은 유성룡이 보낸 「증손전수방략」 책을 보고는 만고의 奇論이라고 경탄하였다. 이 책자에 수록된 것 중 특이한 것은 해전과 화공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후일 이순신이 해전에서 화공법을 자주 사용하는 사례를 통해 볼 때 그의 전략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책자는 당시 비변사의 계획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진력하여 만든 방법서로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저작임에 틀림없다. 이순신이 찬탄을 금치 못할 만큼 이 책자는 이순신의 전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전략사상의 특징과 水軍戰術

(1) 전략사상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이순신의 전략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가 해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했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임진왜란 직전 조선 조정이나 고위 무관들의 일반적 시각은 해전보다는 육전에 더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장차 일본군이 침략해 올 경우 그들을 육지에 상륙시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때 이순신은 해전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宣廟中興志』에 기록된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27) 『亂中日記』, 壬辰年 3월 초5일.

선조 24년(신묘) 7월에 비변사에서 논의하기를, 왜적들이 해전에는 능하지만 육지에 오르기만 하면 민활하지 못하다 하여 육지 방비에 전력하기를 주장하고 대장 申稔은 수군을 철폐하자고 청하여 마침내 호남과 영남의 큰 고을의 성들을 증축하고 수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장계하여 “바다로 오는 적을 막는 데는 수군만한 것이 없으니 수군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⁸⁾

위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 비변사에서는 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현장 지휘관인 이순신의 경우 해전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의 해전인식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전대비 노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그는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직후 전선을 수리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나아가 거북선도 개발하여 건조하였다. 그리고 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정비 또는 개발하였다. 아울러 돌산도와 水營 사이에 수중철쇄를 설치하여 바다로 오는 적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²⁹⁾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볼 때 이순신이 해전에 대해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순신은 임진왜란 첫 해전인 1592년(선조25) 5월의 옥포해전에서 승리한 후 올린 장계를 통해 해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을 막는 방책에 있어서 수군이 작전을 하지 않고 오직 육전에서 성을 지키는 방비에만 전력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수백

28) 『李忠武公全書』 권13, 부록5 「紀實(上)」, ‘宣廟中興志’

宣祖二十四年辛卯七月備邊司議 倭長於水戰 若登陸則便不利 請專事陸地防守 大將申稔請罷水軍乃命湖嶺大邑城增築修備 全羅左水使李舜臣啓曰 遮遏海寇莫如水戰水軍決不可廢也 上從之.

29) 『亂中日記』 壬辰年 1월부터 4월까지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순신은 전쟁에 대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년 基業이 하루아침에 적의 소굴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니 목이 매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이 만약 뱃길로 본도(전라도)를 침범해 온다면, 제가 해전으로써 결사적으로 담당하겠습니다.³⁰⁾

위 기록에서 보듯이 조정에서 바다를 지키는데에 매진했다라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조선 조정에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적이 전라도로 침입해 올 때 해전으로써 적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순신은 1593년(선조26) 9월 10일에 보고한 장계를 통해 해전의 장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역설하였다.

(전략) 해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군졸이 죄다 배안에 있으므로 적선을 바라보고 비록 도망해 달아나려 해도 그들의 형편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노를 재촉하는 북소리가 급하게 울릴 때 명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군법이 뒤를 따르는데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아니할 것이며 거북선이 먼저 돌진하고 판옥선이 뒤따라 진격하여 연이어 지자·현지총통을 쏘고 따라서 포환과 시석을 빗발치듯 우박 퍼붓듯 하면 적의 사기가 쉽게 꺾이어물에 빠져 죽기에 바쁘니 이것은 해전의 쉬운 점입니다. (후략)³¹⁾

위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순신은 당시의 수륙군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해전이 전란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해전의 특징과 용이한 점을 소개하면서 해전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순신이 표출한 전략사상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그의 적극적인 對民觀이다. 즉 당시 일반적인 민본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禦敵保民’의

30) 『李忠武公全書』 권2, 장계1 「玉浦破倭兵狀」.

31) 『李忠武公全書』 권3, 장계2 「條陳水陸戰事狀」.

사상보다 진일보한 개념이다. 예부터 군인을 성곽에 비유하여 그 임무를 잘 나타낸 용어가 바로 ‘禦暴(敵)保民’이다. 이 말은 적을 막아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군인이라면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의 경우 이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이순신의 백성들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은 그들을 전란극복의 동반자로 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의 도움을 통해 전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이순신은 해전을 수행하면서 항상 백성들의 안위를 함께 생각했다. 일본군이 육지 가까이 포진해 있을 때는 그들이 유사시 배를 버리고 육지로 상륙하여 백성들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따라서 그들을 되도록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무찔렀다. 그리고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적선에 대하여는 모두 격침시키지 않았다. 모두 격침시킬 경우 육지로 상륙한 적들이 백성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다.³²⁾

또한 살길을 찾아 온 많은 피난민들을 수용하여 이들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해 주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초기 많은 피난민들이 좌수영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돌산도를 비롯한 섬 지방에 보내어 농사를 짓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리고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임한 이후에는 더욱더 민생문제에 관심을 배가하였다.

아울러 그는 백성들과 함께 전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 사료를 통해서 그의 민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의 생각에는 각도의 피난민들이 이미 정주할 곳을 잃었고, 또 생명을 이어갈 방도가 없어서 보기에다 참담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이 섬에 불러들여 살게 하면서 협력하여 농사를 지은 뒤에 서로 절반씩 나누어

32) 예컨대 안골포 해전의 경우 당일에 적선을 다 격침시킬 수 있었지만, 그럴 경우 일본군이 육지로 상륙할까봐 그대로 두고 물러나왔다. 그 날 밤을 기해 일본군들은 배를 타고 모두 도주하였다.

가지게 한다면公私間에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양 등지의 유방군은 도양장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밖에 남은 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병작하게 하고, 말들은 절이도로 옮겨 모으면 목장에도 손해가 없고 군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³³⁾

이와 같이 이순신은 遊離하는 백성들을 보살피는 동시에 屯田경영으로 군량미를 해결하는 이중효과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그의 백성을 위한 노력은 피난민들에게 커다란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써 백성들도 이순신의 여러 가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를테면 1592년 5월의 옥포해전 때에는 첫 출전인 만큼 전투에서 위세를 보이기 위하여 민간어선인 포작선까지 동원하여 수군의 사기를 드높였다.³⁴⁾ 또한 1597년 9월의 명량해전 시기와 같이 수군의 전력이 열악했을 때 피난민들도 鄉船을 동원하여 해상외병으로 활동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군량미와 의복 등 군수물자들을 조선수군에게 아낌없이 지원 하였다.³⁵⁾ 이러한 백성들의 도움은 종전시기까지 지속되어 수군 재건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³⁶⁾

33) 『壬辰狀草』, 『請設屯田狀』(1593년 윤11월 17일 계본).

34) 옥포해전에서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에서 동원한 세력은 전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이다. 이중 포작선은 어선을 동원한 것을 지칭한다(『李忠武公全集』 권2, 장계1 「玉浦破倭兵狀」).

35) 예컨대 명량해전 시기 피난민들은 100척의 향선을 동원하여 조선수군을 도왔다. 이들의 도움형태는 직접 전투에 참전하거나, 군량미와 의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拙稿, 『임진왜란 시기 李舜臣 幕下人物의 활동』, 『역사와 경계』 52호(부산경남사학회, 2004), 31-32쪽).

36) 종전기 수군의 전력이 열악했을 때 군량미 획득을 위해 ‘해로통행첩’제도를 시행하여 피난민들로부터 군량미를 확보하기도 하였다(柳成龍, 『懲愆錄』 권2, “患乏糧 作海路通行帖 令曰 三道沿海公私船無帖者 以奸細論 毋得通行 於是 凡避亂乘船者 皆來受帖 舜臣以船大小差次 使納米受帖 大船三石 中船二石 小船一石 避亂之人 盡載財穀入海 故不以納米爲難 而以通行無禁爲喜 旬日 得軍糧萬餘石”).

(2) 수군전술의 전개양상

당시의 수군전술은 매우 다양하였다. 오봉근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역사에서 수군전술의 발전형태는 전선과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에 비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화포가 개발되기 전인 고대의 해전수행방법은 현측을 맞대고 승선하여 육박전을 벌이는 接觸戰의 형태였다. 그러다가 화포가 개발된 고려시대 말부터는 火力打撃戰을 배합한 海上機動戰을 수행하였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火力機動戰이 일반화되었다.³⁷⁾

특히 판옥선과 거북선이 개발되고 다양한 화포가 전선에 장착된 임진왜란 중에는 수군전술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사되었다. 여기서는 이순신이 지휘한 해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술들만 살펴보고자 한다.

1) 先制攻撃 戰術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전술 가운데 하나의 특징은 선제공격이다. 이순신은 당시 일본군이 철저히 지휘관 중심의 부대임을 간파하였다. 따라서 적 지휘선 또는 대장선을 먼저 공격하여 지휘관을 사살할 경우 전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순신의 이러한 전술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먼저 1592년 6월 2일의 당포해전에서 이러한 선제공격 전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의 장계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총루선 밑을 들이받으면서 용의 입으로 현자 철환을 치쏘게 하고, 또 천자·지자 총통과 대장군전을 쏘아 그 배를 쳐부수자 뒤따르고 있던 여러 전선들도 철환과 화살을 번갈아 쏘았는데, 중위장 권준이 돌진하여 왜장을 쏘아 맞히자, 쿵하는 소리를 내며 거꾸로 떨어지

37) 오봉근, 『조선수군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한국문화사 영인본, 1998.

므로 사도첨사 김완과 군관 홍양 보인 진무성이 그 왜장의 머리를 베었습니다.³⁸⁾

이렇게 하여 적의 기함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적은 사기를 잃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수군들은 사기충천하면서 더욱더 공격에 박차를 가해 적을 소탕했던 것이다.

같은 해 6월 5일의 당항포해전에서도 돌격장이 탄 거북선으로 하여금 적의 대장선 밑에까지 돌진하게 하여 용두를 쳐들고 현자총통을 발사하여 적선을 깨트렸다. 이 와중에 적장은 화살에 맞아 바다에 떨어졌다. 대장을 잃은 적 수군은 오합지졸이 되었고, 우리 수군은 이런 적선들을 완전히 격침시켰다.³⁹⁾

1592년 9월 1일에 있었던 부산포해전에서는 초량목으로 나오는 적의 선봉 대선 4척을 먼저 쳐서 기선을 잡았다.⁴⁰⁾ 명량해전 때에도 전 화력을 적 대장선에 집중 사격하여 쳐부수고 적장 馬多時를 죽였다.⁴¹⁾ 일본군들은 갈팡질팡하고 우리 수군의 사기는 충천하여 적을 소탕할 수 있었다.

2) 撞破 戰術

撞破란 적선을 충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당파전술의 기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중엽, 여진의 침입이 잦을 때 전선의 뱃머리를 철각으로 하여 채속을 이용한 당파전술로 여진의 海寇船을 격침시켰던 것이다.⁴²⁾ 이러한 고려의 전선은 조선에 들어와 더욱 발전하여 태종 때에 이

38) 『李忠武公全書』 권2, 장계1 「唐浦破倭兵狀」.

39) 上同

40) 『李忠武公全書』 권2, 장계1 「釜山破倭兵狀」.

41) 『亂中日記』, 丁酉年 9월 16일.

42) 『小右記』 寬永 3년 8월 10일조에 보면 東女眞 海寇에 납치되어 가던 일본여인이 도중에 서 고려수군과 여진간의 싸움을 목격하고 고려수군에 의해 구출된 뒤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였는데, 고려 전선을 자세히 말하면서 고려전선의 선두에 鐵角이 달려있어 적선을

미 거북선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의 기록으로 보아 이미 당파용으로 운용되었으리라 판단된다. 당시는 화포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전용 화포까지 전선에 장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화포전은 없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기록에도 “견고하고 교묘하게 만들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거북선은 당파용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⁴³⁾

그런데 임진왜란 시기 조선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과 돌격선인 거북선에는 화포가 장착됨으로써 화포에서 발사되는 피사체에 의한 적선의 당파가 일반적인 전술형태로 정착되었다. 즉, 이전에는 전술자체가 화포전이 드물었기 때문에 적선을 당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당시에는 화포전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당파전술의 위력은 한층 돋보였던 것이다. 특히 거북선을 중심으로 한 당파전술은 1592년 5월의 사천해전을 필두로 하여 여러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⁴⁴⁾

예컨대 사천해전에서는 이순신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일본수군이 사천 앞 바다에 나오자 신속히 우리 수군이 회항하여 적을 포위하였다. 동시에 거북선은 적진 깊숙이 돌입하여 적선에 충격을 가해 격침시킴으로써 큰 전과를 거두었다. 당파해전 때에도 “거북선은 적 기함에 바짝 다가가서 용머리를 치켜 올리고 현자포를 방사하였다… 적선을 부딪쳐서 당파하자…”⁴⁵⁾라고 하였고, 부산포해전에서는 공격목표를 적군 사살보다도 적선을 격파하는데 두어 적선 100여 척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충격하였다고 기록하였다(羅鐘宇, 『忠武公 李舜臣 提督의 戰略戰術』,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해군군사연구실(1993), 123쪽에서 재인용).

43) 거북선에 관한 실록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太宗實錄』 태종 13년 2월 5일(甲寅)조에는 “임금이 臨津渡를 지나다가 龜船과 倭船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태종 15년 7월 16일(辛亥)조에는 左代言 卓楨이 兵備에 대한 여섯 가지事宜를 올린 가운데, 여섯 번째에 “龜船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위 결승의 좋은 계책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견고하고 교묘하게 만들게 하여 전승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라는 기록이 있다.

44) 羅鐘宇, 위의 글.

45) 『李忠武公全書』 권2, 장계1 『唐浦破倭兵狀』.

매 전투마다 거북선과 판옥선에 의한 당파전술은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조선 수군이 당파전술로 적선을 격침시킬 수 있었던 것은 판옥선과 거북선이 적선보다 견고했음과 탑재 무기의 성능 면에서 우월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순신은 이러한 피아간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당파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火攻 戰術

이순신의 전술 중에서 대다수 해전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화공전이다. 화공전이란 화기를 이용하여 적선을 불태워 침몰시키는 전법으로 철선이 개발되지 않은 전근대시기 대부분의 해전에서 보이는 일반적 전술이었다. 이를테면 당시 모든 배들은 木船이었고, 따라서 불에 약함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자체 폭발에 의한 파괴력을 가진 피사체가 없던 당시로서는 화공전이야말로 적선을 격침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전법이었다.

이순신은 옥포해전 때부터 “왜선 30척을 불태우니 연기가 하늘을 덮었으며...”⁴⁶⁾라는 기록과 같이 화공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해전인 1598년 11월의 노량해전에서도 “적선 200여 척을 불태우고 죽이고 노획한 것이 무수했으며...”⁴⁷⁾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7년 동안의 해전에서 화공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당항포해전에 관한 기록에는 “火箭으로 누선의 돛을 쏘아 불을 지르자...”⁴⁸⁾라는 기사가 있다. 이때 사용한 화전이라는 것은 그 전의 사천해전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神機箭을 활용하여 적의 살상과 방화에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6) 『李忠武公全書』 권2, 장계1 「玉浦破倭兵狀」.

47) 『李忠武公全書』 권13, 부록5 「紀實(上)」, 「國朝實錄」.

48) 『李忠武公全書』 권2, 장계1 「唐浦破倭兵狀」.

위의 자료 외에도 많은 기록에서 이순신이 화공전술을 구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량해전 때에는 “불붙은 나무를 마구 던져 적의 배를 연소시키니 적이 견디지 못하고 관음포 항구로 몰려 들어갔다”라고 하였다.⁴⁹⁾

그러면 이 화공전술은 적에게 어떤 타격을 주었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적의 배는 모두가 목선이므로 불에 닿으면 곧 불이 붙어 싸움보다 불에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 그리고 적들은 모두 개인화기인 조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 안의 화약에 불이 닿으면 쉽게 폭발되어 삼시간에 불이 붙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李忠武公全書』의 「諡狀」에 기록된 다음의 당포해전 관련 기사를 통해 불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다.

공은 잡아온 적의 증각 배를 앞으로 내어놓고 적들과 1리쯤 떨어진 곳에서 불을 지르니 배 안의 화약이 폭발하여 큰 소리와 불꽃이 진동하자 적이 또 패하여 달아났다.⁵⁰⁾

이 화공전술은 적중하여 매 전투마다 적들은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화공전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전선에 탑재되어 있던 총통 등 대형화기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결국 적들은 배에 불이 붙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조선 수군은 사기가 올라 훌륭한 전투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4) 陣法의 適用

兵勢에 있어서 그 진을 형성하는 것은 그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순신이 옥포·당포·한산·부산포 등 많은 전투에서 싸

49) 『李忠武公全書』 권13, 부록5 「紀實(上)」, 「宣廟中興志」.

50) 『李忠武公全書』 권10, 부록2 李植 撰, 「諡狀」.

운 형태를 볼 때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그것을 병세상으로 볼 때 실로 다양한 모습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의 병세는 문자 그대로 변화무쌍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순신은 부딪치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형에 변화를 주었다. 즉 어떤 전투든지 수시로 그 상황에 맞는 전법을 택했던 것이다. 여기서는 兵陣 형태로 볼 때 이순신이 즐겨 쓴 것으로 볼 수 있는 魚鱗鶴翼(鶴翼陣)·魚鱗·八陣奇門法⁵¹⁾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학익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순신이 학익진을 가장 멋지게 사용한 전투는 한산해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後述하므로 생략한다. 이러한 학익진법은 1592년의 옥포·울포·당항포해전 등에서도 즐겨 사용하였다. 1594년 3월에 있었던 제2차 당항포해전에서의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그리고 신은 이억기·원균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영등포와 장문포, 적진포 앞바다에 있는 증도 해상에서 학의 날개 같이 진을 벌이고 한바다를 가로 끊어서 앞으로는 우리 함대의 위세를 보이고 뒤로는 적의 갈 길을 막았습니다.⁵²⁾

라는 기사가 보인다.

다음으로 이순신의 진법 중 어린진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진형만 가지고 모든 전투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형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적용하였다. 예컨대 어린진형에서 학익진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이것

51) 魚鱗鶴翼: 물고기의 비늘이 벌려진 것 같은 진형과 날개를 편 것 같은 진형을 일컫는 말; 魚鱗: 물고기 비늘처럼 나란히 잇대어 있는 진형; 八陣奇門法: 적군의 위세를 손상하고 아군의 형세를 증강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형세, 팔진이란 홍범의 팔방을 해중에서 적용한 형상이며 그 중에 三方에 복병을 두었다가 적군이 허한 곳이 있으면 질풍같이 공격하는 方陣.

52) 『李忠武公全書』 권4, 장계3 「唐項浦破倭兵狀」.

을 기초로 하여 이합분산의 조화를 가미한 팔진기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옥포해전 때에는 어린진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열로 진격할 때에 큰 전선들을 따르게 하며 대선과 소선들은 모두 넓은 기폭을 올리게 하여 전선의 수가 많게 보이도록 이용한 것이다. 이 어린진법으로 기선을 제압하여 적을 포위한 뒤 팔진기문법으로 적의 함대를 쳐부수는 것이다.

1592년 6월 5일의 당항포 해전 때에도 “여러 군사들이 일제히 재촉하여 머리와 꼬리를 서로 이어 고기떼 같이 진군하여 소강에 이르니…”⁵³⁾라고 한 것도 어린진법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명량해전 때에도 “공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일자형으로 진을 치고 대포와 화살을 사방에서 쏘아대니 적병은 쓰러졌다”⁵⁴⁾라고 했는데, 이때의 일자형 진은 어린진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진법으로 1592년 9월의 부산포해전을 들 수 있다. 즉, 이순신의 전라좌수군이 앞장서고 그 뒤를 전라우수군과 경상우수군의 전선이 뒤따르게 하였다. 이때의 진형에 대하여 이순신은 ‘長蛇突進’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의 종열진 형태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순신의 전략사상과 수군전술이 가장 유감없이 발휘된 해전으로는 한산대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한산대첩을 전술적으로 분석하여 이순신의 수군전략가로서의 면모와 수군전술의 구사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53) 『李忠武公全書』 권13, 부록5 『紀實(上)』, 『昭代年考』, 『壬辰狀草』, 『二度唐項浦勝捷啓本』.

54) 『李忠武公全書』 권10, 부록2, 李植 撰, 『諡狀』.

4. 閑山大捷과 李舜臣의 戰術

(1) 閑山島 海戰

이순신은 7월 7일 고성 땅 당포에 머무르고 있던 중 저녁 무렵 미륵도의 목동 김천손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즉 “적의 대·중·소선을 합하여 70여 척이 오늘 하오 2시쯤, 영등포 앞 바다로부터 와서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량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에 따라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에게 지시하고 8일 이른 아침에 발선하여 한바다에 이르렀다. 이때 마침 적의 대선 1척과 중선 1척이 선봉으로 나와서 조선 수군을 발견하고는 자기진영으로 돌아갔다. 조선수군이 뒤쫓아 가서 확인해 보니 대선36·중선24·소선 13척(모두 73척)이 대열을 벌여서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 조선수군의 전선 수는 우리측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측 기록에 의하면 전선 58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중 3척은 거북선으로 기록되어 있다.⁵⁵⁾ 일본의 전선 중 전투능력을 갖춘 대·중선이 모두 60척임을 감안할 때 양국의 전선 수는 대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은 견내량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수군을 물리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순신이 직접 기록한 보고서를 통해 그의 전략가로서의 면모와 전략전술을 살펴볼 수 있다.

(전략) 위 (a) 견내량의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 관육전선은 서로 부딪치게 될 것 같아서 싸움하기가 곤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b) 적은

55) 『高麗船戰記』.

九日の辰の刻より敵大船五十八艘其外小船五十艘斗にて責懸候大船の内三艘目くら船鉄にて要害し石火矢ばう火矢大狩候ほにて辰の刻より酉の刻迄入かへく責候て矢蔵をもらうかうも足かくしの要害をも悉く打破候波….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기습을 타고 육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c)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끌어내어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全捕之計] 을 세웠습니다. … 한산도는 사방에 해엄처 나갈 길이 없고 적이 비록 육지로 오르더라도 틀림없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먼저 판옥선 5~6척을 시켜서 선봉으로 나온 적선을 뒤쫓아서 엄격할 기세를 보이게 한 즉, 여러 배의 적들이 일시에 돛을 달고 쫓아 나왔습니다.⁵⁶⁾

위 기록에서는 적을 유인해야 하는 이유와 싸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적을 유인해야 하는 이유로는 ‘(a)’와 같이 견내량의 지형적 특성이 조선수군의 작전에 부적합하다는 전략가적인 판단에 의해서였다. 또 한 가지 이유는 ‘(b)’와 같이 유사시 적들이 상륙하여 조선의 백성들을 해칠까 염려해서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이순신의 대민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이순신은 (c)에서와 같이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全捕之計]’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이번 해전에서 한 척도 놓치지 않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당시로서는 무인도라 할 수 있는 한산도 쪽으로 일본군을 몰아 적을 완전히 궤멸시킬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계획으로 일본수군과 접전을 시도한 조선 수군은 다음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 배는 거짓으로 물러나면서 돌아 나오자 왜적들도 줄곧 뒤쫓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나와서는 다시금 (a)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鶴翼陣을 벌려서 일시에 진격하였습니다. (b) 각각 지자·현자·승자 등의 각종 총통을 쏘아서 먼저 2~3척을 깨트리자 여러 배의 왜적들이 사기가 꺾이어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승리한 기세를 뽐내어 앞을 다투어 (c) 돌진하면서 화살과 화전을 번갈아 발사하였습니다. 그 형세가 바람과 우레 같아 적의 배를 불태우고 적을 사살하기를 일시에

56) 『李忠武公全書』 권2, 장계1 「見乃梁破倭兵狀」.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⁵⁷⁾

위 기록에는 당시 조선수군이 구사한 다양한 전술이 언급되고 있다. 우선 이순신의 적절한 진법구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a)’와 같이 학익진이라는 진형을 형성하여 총통의 명중률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익진은 조선 초기 문종대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이순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진형은 아니다.⁵⁸⁾ 다만 이순신은 당시의 전선에 탑재한 화포의 명중률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진형이 학익진임을 인식하고는 이 진형을 적절히 구사한 것이다.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b)’와 같이 선제공격전술을 구사한 점이다. 즉 선두에 있는 적선들을 먼저 깨트림으로써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는 일본군도 나뉘대로 진형을 형성하여 조선 수군을 향해 항진해 오다가 선봉선이 침몰함으로써 그 진형이 흐트러져 자연스럽게 탄착점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와 같은 대포음이 수반된 가운데 선봉선이 침몰하면서 뒤따라오던 일본수군들의 사기가 꺾여 전의가 상실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측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일본측 기록에 의하면 일본수군의 선봉선을 깨트린 데에는 거북선의 활약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순신이 일찍이 창조한 거북선은 판으로 위를 덮고穹窿이 거북이와 같다. 전사와 노부가 모두 그 안에 있다. 중횡출입이 복[椽]과 같다. 계속해서 포로써 우리 배를 부수고 모든 배가 함께 공격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했다. 우리 장수의 배는 높이가 수장이고 위에는樓檣를 설치해 홍단채모로 그 밖을 둘러 대포가 깨트리는 바가 되었다.⁵⁹⁾

57) 『李忠武公全書』 권2, 장계1 「見乃梁破倭兵狀」.

5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兵將說·陣法』, 1983, 207쪽.

59) 『征韓偉略』.

舜臣嘗創造龜缸 以板鋪其上 形穹窿如龜 戰士權夫皆在其中 多載火砲 縱橫出入如椽 連以砲

위의 기록을 볼 때 당시 조선수군은 거북선이 먼저 적선을 화포로 깨트린 후 다른 전선들이 이에 합세하여 적선을 불태우는 전법을 구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선봉선에 대한 공격은 당시 일본군 조총의 사격에도 피해가 작았던 거북선이 담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관옥선이 적선 가까이 가서 총통을 발사할 경우 일본군 조총의 사거리 내에 위치하여 상당한 인명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거리에 위치한 관옥선에서 총통을 발사할 경우 그 명중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적선 가까운 곳에 접근한 거북선에서 발사한 총통은 그만큼 명중률이 높았을 것이다.

아울러 ‘(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수군은 화공전술을 유감없이 구사하였다. 즉 화전을 발사하여 적선을 불태우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한산도 해전은 단기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고 말았다. 그것은 조선수군의 전력이 가장 잘 응집된 가운데 효율적인 전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한산도 해전에서 조선전선은 1척의 손실도 없이 일본전선 73척 중 47척을 격침시켰고, 12척을 온전하게 나포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일본수군의 대장 脇坂安治는 겨우 목숨을 건져 패잔전선 14척을 이끌고 김해방면으로 도주하였다.⁶⁰⁾

(2) 安骨浦 海戰

안골포에 일본군선 40여 척이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조선수군은

碎我船 諸船合攻 烟滔漲天 我將船高數丈 上施樓櫓 以紅段彩氈圍其外 爲大炮所破. 이 자료는 일본측 자료이지만, 본문 내용 중 상당부분을 『懲懲錄』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60) 『脇坂家伝記』, 『改定 史籍集覽』 35, 明治35.

然れ共安治は櫓數の多き早船に乗ければ掛引自由にして其身恙なしと云へ共 鎧に矢などあたりて危き事 十死一生に極れり敵船弥競掛りきりに火矢を射掛ければ安治か早船は終に金海に引取ぬうちもらされたる.

7월 10일 새벽에 발선하여 안골포를 향해 진군하였다. 이때 이순신은 안골포로 향하면서 적을 섬멸할 용의주도한 계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0일은 새벽에 배를 띄워 “본도 우수사는 안골포 바깥 바다의 가덕 번두리에 진치고 있다가 우리가 만일 접전하면 북병을 남겨두고 급히 달려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신은 함대를 거느리고 학익진을 형성하여 먼저 진격하였고, 경상우수사는 신의 뒤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안골포에 이르러 선창을 바라본 즉, 대선21척·중선15척·소선 6척(모두 42척)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61)

즉 위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투 초기단계에서 무작정 진격을 한 것이 아니라 적의 협공에 대한 대비책과 적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한 계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테면 부산쪽으로부터의 일본수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전라우수군을 가덕도쪽에 배치하여 둔다는 것이고, 접전시에는 집중의 원칙을 감안하여 합동으로 공격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라좌수군은 학익진을 형성하여 진군함으로써 포구 밖으로 나오는 적선을 한척도 남김없이 격멸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안골포의 전투 환경은 조선수군의 鶴翼陣 형성에 적합하지 않았다. 즉 이순신은 포구의 지세가 좁고 얕아서 조수가 물러나면 육지가 드러날 것이므로 판옥선과 같은 대선은 용이하게 출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여러 번 유인작전을 펼쳤지만 한산도 해상에서 先運船이 참패를 당한 사실을 전해들은 일본 수군은 포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순신은 다음의 기록에서와 같은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였다.

할 수 없이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a) 서로 교대로 출입하면서 천

61) 『李忠武公全書』 권2, 장계1 「見乃梁破倭兵狀」.

자·지자·현자 총통과 여러 가지 총통뿐 아니라 長片箭 등을 빗발같이 쏘아 맞히고 있을 무렵에 본도 (b) 우수사가 장수를 정하여 복병시켜 둔 뒤 급히 달려와서 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세가 더욱 강해져 (c) 방이 있는 대선과 2층 대선을 타고 있던 왜적들은 거의 다 사상하였습니다.⁶²⁾

즉, 위의 기록 중 (a) ‘서로 교대로 출입하면서’라는 표현과 같이 포구가 좁은 점을 고려하여 일종의 長蛇陣을 구성하여 공격하였다. 이것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1592년 9월에 있었던 부산포 해전 때 포구에 정박한 일본 군선들을 공격한 형태와 유사하다. 그리고 약속대로 전라우수군까지 합세하여 (b) 병력 집중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전투의 효율성을 배가시켰다. 또한 (c)와 같이 대장선인 대선을 위주로 선제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여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때도 거북선에 의한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우리측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의 일본측 기록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嘉隆·嘉明의 배가 7일 가덕에 닿고, 8일 당도에 정박했다. 9일 적함 대소 백여 척이 공격해 왔는데, 火箭·火矢가 비와 같았다. 아군 또한 대포를 발사하여 서로 살상자가 있었다. 싸움은 진시에서 유시까지 계속되었다. 적선 중에는 전부 鐵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 우리 포가 능히 손상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적군의 火箭은 지름과 길이가 크고 길었으며, 鐵箭은 단지 발사하면 우리 장수가 있는 樓檣가 위급하였다.⁶³⁾

9일 辰시부터(오전 7-9시) 적의 큰 배 58척과 작은 배 50척 가량이 공격해 왔다. 큰 배 중의 3척은 盲船인데, 철로 덮여져 있으며, 석화시, 봉화시,

62) 上同.

63) 『高麗船戰記』.

嘉隆嘉明舟七日抵加德 八日泊唐島 九日敵艦大小百餘艘來攻 火箭火矢如雨 我軍亦發大砲 互有殺傷 戰自辰及酉敵船有以全鐵裝者 我砲不能傷 而敵軍火箭用長大勁幹鐵箭 咫尺而發 我將帥在樓檣者殆危急….

大狩侯 등을 쏘며 오후 6시경까지 번갈아 달려들어 공격을 걸어와 망루로부터 복도, 테두리 밑의 방패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격파되고 말았다.⁶⁴⁾

위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鐵裝을 하고 있는 배 또는 盲船으로 언급된 배는 거북선으로 추정되며 3척이 참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조선의 화포공격은 석화시(대장군전으로 추정), 봉화시(장군전으로 추정) 등의 피사체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수군의 다양한 전술이 이전의 제2차 출전 이후부터 일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수군의 집중공격에 일본수군은 당하지 못한 채 다수가 육지로 도주하였다. 그런데 당시 안골포 산 속에는 많은 백성들이 잠복해 있었다. 이순신은 일본의 전선들을 모조리 없앨 경우 궁지에 빠진 일본수군들에 의해 백성들이 비참한 살육을 면치 못할 것을 염려하였다. 이순신의 대민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남은 전선을 둔 채 1리쯤 물러나와 밤을 지냈다. 일본수군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을 때 일망타진할 계획인 것이다.

다음날인 11일 새벽에 다시 포구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일본 수군들은 밤새 도망하고 없었다. 이순신은 가덕 바깥으로부터 동래·물운대에 이르기까지 배를 늘여 세워 진을 치게 하고 조선수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런 후 적에게 오랫동안 주둔할 계획인 것처럼 의심하게 제반 조치를 취한 후 밤을 틈타 철군하여 12일 오전에 한산도에 도착하였다.

64) 『高麗船戰記』.

九日の辰の刻より敵大船五十八艘其外小船五十艘斗にて責懸候大船の内三艘目くら船鐵にて要害し石火矢ばう火矢大狩侯ほにて辰の刻より酉の刻迄入かへく責候て矢藏をもらうかうも足かくしの要害をも悉く打破候渡….

5. 맺 음 말

기존 연구경향을 볼 때 이순신의 수군전략을 다룬 논고는 많지만, 그의 전략사상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순신의 전략사상의 형성과정을 먼저 밝혀본 후 그의 전략전술의 특징을 토대로 한산대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순신은 당대의 일반무장과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에 충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병법서적을 섭렵하여 전략가로서의 자질을 구비해 나갔다. 이러한 그의 전략가로서의 능력형성의 배경에는 장인 방진과 후견인 유성룡의 도움도 컸다고 볼 수 있다.

무과에 급제한 이순신은 군 직책을 수행하면서 수군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체험으로 수군전략가로서의 능력을 키워 나갔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사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수군직이었던 발포만호와 조산보만호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수군전략가로서의 실무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전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대비태세를 구축하는데 진력하였다. 이어서 임진왜란을 맞은 이순신은 그동안 구비해 온 수군전략가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그의 전략사상의 기저에는 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과 함께 전란을 극복한다는 적극적인 대민관이 자리하였다. 이는 이순신의 다른 일반무장과는 다른 독특한 사상이었다.

수군전략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이순신의 전략전술이 가장 유감없이 발휘된 해전은 바로 한산대첩이었다. 한산대첩은 조선수군과 일본수군의 정예세력이 맞붙은 決戰이었다. 이 해전에서 이순신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였다.

예컨대 지형을 고려한 유인전술, 상황에 부합하는 수군진형을 형성한 점, 거북선을 이용한 선제공격, 당파 및 화공전술 등을 유효적절하게 구사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은 戰果에 급급하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를 우선시하였음은 물론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순신이 주요 해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산대첩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한산대첩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전술이 가장 두드러진 승리요인이었다고 본다.

(원고투고일 : 2006. 4. 17, 심사완료일 : 2006. 7. 25)

주제어 : 이순신, 한산대첩, 수군전략가, 거북선, 학익진

K C I

<ABSTRACT>

The Naval Strategy and *Hansan* Great Victory of
Admiral *Yi Sun-sin*

Je, Jang-myeong

This study tries to analyze excellent strategies of Admiral *Yi, Sun-sin* being showed in the *Hansan* Naval Battle, where *Yi* showed his perfect strategies and tactics. To do this, I, first of all, I illuminate making-process of his brilliant thoughts as naval strategies.

Compared with those who were of same his age, *Yi Sun-sin* surely tried to study far harder than any others since his childhood. In addition, since his youth, he had read through all the books related to naval warfare and war strategies which made him the person fit as a naval strategy expert. It is true that his capability and insights being centered on strategy had been forming with helps from his father-in-law, *Bang Jin* and the supporter *Yu, Seong-yong*. While serving the military, plus, he had been developing his abilities as a strategy expert of the navy by studying and experiencing for fourteen years, until the time right before Japanese invading the *Joseon* Dynasty in 1592.

Admiral *Yi Sun-sin* showed his ability as a commander of *Joseon Navy* in 1592. Above all, he loved his people and wanted to protect them as much as he could. He always thought that the war was overcome with the helps from *Joseon* people. Not to mention of it, he was well equipped with the importance of battle in sea. Nobody thought it without him.

It was in the *Hansan* Great Victory that he showed his great talents for

naval strategies. The *Hansan* Great Victory was the momentous sea battle between *Joseon*' Naval Forces and Japanese' picked naval troops. *Yi Sun-sin* showed multiple strategies in the battle. For example, his fleets used war-tactics with configurations of either sea or lands, battle ship array with situation, preemptive attacks with the Turtle-shaped Ship and attacks with fires. All these tactics led to great victory.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Hansan* Great Victory was *Yi Sun-sin*'s unique strategies showed in the navy battles.

Key Words : *Yi Sun-sin*, *Hansan* Great Victory, Naval Strategist, Turtle-shaped Ship, Crane Wings Camp

K C I